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형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권진자> ● 본필자: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문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체를 근본에 맡겨놓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팔자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일체에 걸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팔자 운명으로 인해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을 잘못했다면 그 잘못된 게 지금 나한테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침착하게 한 생각 해서 잘 말하고 잘 생각해야 이런 뜻입니다. 그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은, 팔자 운명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자신의 탓입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 하나 풀 한 포기 다 실 사이 없이 돌아가고 우리 인생살이도 실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팔자 운명이나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귀 열고 있죠. 발 움직여도 냄새 맡죠. 다 이렇게 뚫어져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가는 대로 앞뒤를 보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연기법이며 그대로 공법이며 그대로 세상 법이예요.

우리는 살아오면 습을 놓칠 못해요. 그 습을 떨쳐야 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왔으니까, 못한 다한다가 너무나 많고 또 알면서도 그대로 그냥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 실전을 한번 해볼 생각이 안하고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인생살이에 극치적으로 들어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천차만별의 그 광대한 법은 누가 죽는다 안 죽는다, 굶어 죽는다 잘 먹고 산다를 떠나서 지구를 집을 삼아 살고 있는 생명들이니까. 그래서 이 도리를 웬만치 납득하고 이해하기 이전에 진짜로 내가 나를 움직여가게 하는구나, 살리는구나, 그리고 형성시켰다는 걸 아신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알고 믿고 당당하기가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뭐 당당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잘되게끔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고 양 갈래 길을 다 자기 한손에 쥐어야만 이 그게 부처님의 공법이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지구라는 집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물에 죽고 불에 죽고 세상이 극한을 겪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마음에 의해서, 심성에 의해서 모든 게 전멸할 수도 있고 전부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반면에 세세생생 불국토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문제

진정한 부모의 도리

문 예전에 저는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자식과 나를 다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이 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라 생각하고 온갖 일에 다 참견하고 신경 쓰는 것이 관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저의 모습을 보며 반성하기도 하고 그런 집착을 놓기 위해 많이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길잡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길잡이를 좇아 들어가야 하는데 좇아 들어갈 때에 만약 배가 고프다면 그 애비는 자식을 밥을 먹여야 하는데 밥을 먹이고 과자도 사 먹여 가면서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그게 여간 편안한 놈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식은 애비를 좇아 들어가 애비는 자식이 배고프면 먹게 해주고 다리 아프면 쉬게 해주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좇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면 말입니다. 부(父)가 와도 온

마음공부를 5년째 해 나가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다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근본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어떻게 잡고 나가야 남아있는 마음 들까지도 다 놓아 자식에게 초차도 여여할 수 있을지 가르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내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언제 적의 부모 자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세계는 그 세계대로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신경 쓰실 게 없습디다. 자기 살 궁리는 자기들이 하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부모가 계시니까 그렇지 자기네들이 위급하면 위급한 대로 또 먹고살게끔 마음을 쓰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나쁜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걸로 막으면 더 자주 달아나기니까 안에서 일입시켜 놓고 나면 나도 아주 편안하면서 그쪽은 그쪽대로 점차적으로 마음의 에너지가 자꾸 같이 섞여서 들어가게 되니까 저절로 깨끗하게 닦여져요. 그러니까 내팽개치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한테는 잘되는 법이죠. 육신을 불태우고 하고 사랑으로 불붙게 되면 더욱 더 마음이 어둠컴컴해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부모가 방황하면 자식도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유전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억겁 광년의 횡수를 줄일 수도 있고 또는 깜짝할 사이에 늘일 수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때문에 그걸 팽개치면 팽개치는 대로 소멸된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업보가 사그라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소용돌이로 내가 한

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길잡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길잡이를 좇아 들어가야 하는데 좇아 들어갈 때에 만약 배가 고프다면 그 애비는 자식을 밥을 먹여야 하는데 밥을 먹이고 과자도 사 먹여 가면서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그게 여간 편안한 놈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식은 애비를 좇아 들어가 애비는 자식이 배고프면 먹게 해주고 다리 아프면 쉬게 해주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좇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면 말입니다. 부(父)가 와도 온

실상을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말도 못하고 움직여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못 믿고 그렇게 무시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불(佛)은 우주를 싸고 있는, 전체 소용돌이를 쥐고 있는 부(父)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 자(子)는 부를 따라야겠지요? 그게 제일 첫 번의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모르니까 자는 부를 따라서 항상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버지 가아들로 되어서 모든 것을 처리하죠.

니게 결합이 되면 자기가 말하는 게 그대로 법이 되고 또 자기가 한생각 내지 않고 그냥 말할 때는 무심코 그냥 쓸 수도 있죠. 우리가 그냥 평등하게 하면서도 때때로 따라서 급한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한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딱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우주 전체에 그냥 확산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손뼉을 치면 딱 부딪칠 때 소리는 그 순간이라는 말이죠. 바로 나의 불성 그 자체가 무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말이 나

아닌데 말입니다. 자유인이 되려면 주인공에다 몰락 놔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근본입니다. 근본의 주인공이 텅 비었으면서도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니 이런 켜진다 켜진다 하는 게 없는 자가발전소가 이 안에 있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가발전소를 항상 안으로 두면 항상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꺼졌다 켜졌다 이런 말을 할 것도 없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죠. 그대로 거기서 밝으니까요. 그럼으로써 나는 맘대로 아무 데도 갈 수도 있는 거죠. 허나 자가발전소에 불이 안 켜졌을 때, 안으로 두지 않았을 때, 바깥으로 두었을 때는 불이 안으로 꺼져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천방지축이 되죠. 잠깐하니까요. 그런 거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겨서 안으로만 넣고 주인공을 놓치지 마세요. 자기가 원인인데 자기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나깨나 일을 하나 항상 놓치지 마세요. 아픈 것도 주인공이, 당신이 해결하시라고 하고 맡기고요. 모든 걸 처리해가면서 가는 겁니다. 당신이 해결하라 그러고 있어버리는 겁니다. 해결하라 그러고 있어버려요. 그렇게 믿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주인공의 묘용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의식 조복 받으려면

문 항상 바른 길을 일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항상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드는 생각이나 가만히 있다가도 불현듯이 올라오는 생각들을 보면, 내 속에 어찌된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까 하는 놀라움과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갖가지로 올라오는 의식들이 다 하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되놓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지 어지러운 생각들에 휩싸여 버릴 때도 많습니다. 내 속의 수많은 의식들을 어떻게 다 한마음으로 조복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 우리가 나름대로 사느라고 열심히 살아도 산다는 것이 그저 그렇고, 죽었다가 또 태어난다 하더라도 차원이 그렇게밖에 못 됐으면 그 차원대로 나가 모습을 자기 맘대로 못 해가지고 나오고, 사는 것도 마음대로 못살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커녕 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자기 심부름을 계속 해왔는데 그 중생들을 제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익되게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겠습니까. 자기라는 체를 유지시켜 일생을 내내 갖다가 살면서, 전후사 온갖 군데를 세심하게 다 맡아서 일을 해준 놈도 좀 승진이 돼야 될 텐데 승진을 도모지 못했다 말이지요. 따지고 보면 마음 하나가 오직 이 모든 의식 질차를 다 해서 끌고 다닌다고 봐야

화를 내지 않으려면

문 저는 평소 화를 많이 내는 성격입니다. 울고 그르다는 분별이 많아 서기도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그냥 조그마한 일에도 벌컥 화부터 내기가 일쑤여서 어떤 때는 굉장히 심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에 돌이 들어와 담석증이 되었는데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에 아무리 집착을 안하려고 해도 떨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또 화가 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고 이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 주인공은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안으로 들일 때는 항상, 화난 것도 당신이 화나게 한 거고, 또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당신이 일하게 하는 거고, 이 세상에 나게 한 것도 당신이 나게 한 것이라는 걸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일거일동 모두, 즉 누가 따귀를 때려도 내가 있으니까 따귀를 맞았지 내가 없었더라면 따귀를 맞을 리가 없지 않나. 당신의 손을 빌려서 이것도 당신이 한 것이지

어려울 땐 팔자타령 하는데

내가 나를 움직이는 도리 알면 어떤 일 닥쳐도 당황치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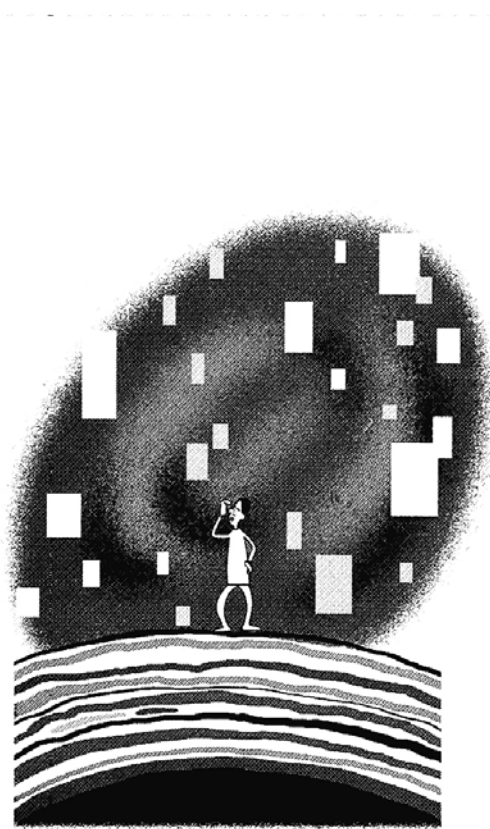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식 집착 놓으려면

걸로 막으면 더 달아나니
편안하고 지혜롭게 이끌
내면의 힘을 기르세요

죠.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각자 나를 믿는다면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배울 때 나오기 때문에 내 육체로서의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나라의 걱정도, 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걱정도, 지구의 막이 터져서, 즉 말하자면 오존층이 파괴돼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물론 그런 힘이 있어야 아무 걱정이 없겠지요. 아무 걱정이 없는 반면에 그것이 다 대치가 되는 것이니 그토록 묘한 마음의 법칙을 다 시험해 보시고 알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 한 발 걸여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내 부(父)가 있어야 내가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주 짧게 눈 깜짝할 사이, 그런 사이에 붙어 있는 나의 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딱 걸부되어 있는데도 그 걸부돼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걸부돼서 아주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걸 못 믿고, 자기가 그저 손가락 하나 놀리는 일거일동까지도 자기 몸에서 움직여지고 보고하는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각자 보는 거죠, 자기를 빼놓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무한의 우주적인 문제, 그 소용돌이로 내가 들어가서 배우려면 반드시 거기 안에서 인도하는 길잡

모르고 자(子)가 그쪽으로 가도 간 줄 모르고 이려고 살죠. 항상 자는 부에게 넘나 들고 부는 자에게 넘나들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합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넘나들어도 자기가 모르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과 주인공의 뜻

문 주인공은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자리이지만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완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구나! 할 때가 있고 '아, 주인공이 하는 거로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랑인 줄은 알지만 내 생각이라는 것과 주인공의 뜻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요. 주인공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자기가 지금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움직여가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걸 믿어야 이겁니다. 미묘하게 자기를 움직여가게 하고, 그러면서도 전 우주를 싸고 있는 자기의 그 부(父)를,

그러니까 본래 부는 자에게로 자는 부에게로 이렇게 넘나드는데 그걸 모르고 들 사니까 이걸 다시 발견해주기 위해서 지금 무조건 우리 모두에게는 부가 있으니 자는 꼭 그 자리를 믿고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할 것이어도 거기에 다 요구를 하고, 병이 나더라도 그 근본 부의 자리를 관해서 닦게 하고 모든 걸 거기에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부(父)에다 일임을 했는데도 안됐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도 '부가 실험을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부가 '오늘이 내가 그러는 줄을 아는구나!'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 그 대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이 풀리는 거야 이 소립니다.

의정을 빨리 푸는 방법이 바로 주인공 당신이 그랬구나! 그러면 '아이고, 이게 발견이 됐구나. 그렇게 잘 아는구나!' 그러구선 자꾸자꾸 해보다가 나중에는 '그래! 내가 나 있는 줄 이제 확실하구나!' 한다던 그때부터는 그 부를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주장자입니다. 그러므로 붙든 놈이나 붙잡힌 놈이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게 주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자기와 돌아

조그만 일에도 벌컥 화가

일거일동 모두 자신이 한 일
내 탓으로 돌리고 맡겨놓아야
주인공의 묘용 느낄 수 있어

않은가 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모든 걸 그 자리에 돌린다면 화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할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하고 자기가 텅 비면서 우뚝 섰고, 우뚝 섰으면서도 텅 비었고, 이게 전체를 한데 뭉뚱해지는 공부란 말입니다. 선(禪)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인공에다가, 그릇도 없고 불을 데도 없는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몰락 놔버렸을 때, 현연히 내가 솟아올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화낼 것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찰나의 생활에서 뭐 취할 게 있다고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세세생생 이어지는 것도

되겠지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출렁 벋을 수가 없습니다.

몸 속에 있는 의식들도 공부하기 전에는 다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나간다면 한테 합쳐서 공생이 되고, 이쪽에서 이쪽을 치면 이쪽이 막고, 저쪽에서 저쪽을 치면 저쪽이 막고, 예를 들어 이 지구가 들어가는 데 나쁜 게 들어온다 하면 들어오지 못하고 탄 데로 들게 하고 그 자리를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듯이 사람의 몸에도 모든 의식들이 다 세속에 있으면서 막는 겁니다. 탄 세균이 들어오면 막고 또 거기에 절충이 잘되는 세균